

좌충우돌 삶도 사랑하리...미지의 세계 또한 '뽕뽕'하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야드라, 떠나보니 살겠드라

뽕뽕 지음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이 있다. 강렬한 제목은 독자들을 끄는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제목만 그럴싸했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제목 장사'는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콘텐츠가 부실하면 독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뽕뽕이 펴낸 '야드라, 떠나보니 살겠드라'는 매력적인 에세이다. "여자 혼자 몸으로 세계 여행을 한지 20년이 되었다"는 문장은 저자가 보통 사람에 아님을 전제한다.

이번 책은 부제도 인상적이다. 거기에 저자의 이름마저 생소하다. 뽕뽕이라는 이름의 저자가 있었던 건가 싶다. 필명인가 싶어 본명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표기돼 있지 않았다.

'65살, 여자, 혼자, 세계 여행자 뽕뽕으로부터'라는 부제는 저자에 대한 범박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지난 2009년 8월 31일 학교 '뽕' 여행을 위해 26년 6개월간의 '학교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도



전에 나섰다. 당시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저자가 여행의 삶을 시작한 것은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지금처럼 SNS가 일상화 되지 않았던 시절 그는 '오블 생활자클럽'이라는 다음 카페를 방문했다. 세계 여행을 다녀왔거나 진행 중인 이틀

로 가득했다. 뽕뽕은 신세계에 매료돼 밤을 꼬박 세워가며 카페를 둘러봤다. 당시 그에게 세계여행은 오랜 로망이었다.

그가 가장 눈여겨봤던, 아니 사로잡혔던 게시물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인 '나야'의 글이었다. 명예 퇴직하고 세계여행을 떠난다는 글에 무려 100여 개



이상의 축하 댓글이 이어졌다. 저자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래, 내가 꾸짖는 삶, 나도 함 해보자!"로 귀결되었다.

저자는 '나야'에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세계 여행을 결정하게 됐는지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독신인데다 큰돈 들일 취미도 없고 혼자 몸 건사할 자산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여행이란 삶이다. 여행이라는 삶, 삶이라는 여행. 자궁에서 유영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여행, 삶 속에서 나는 맘껏 헤엄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여행 인생은 이번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뽕뽕이라는 필명은 중의적인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여행을 하는 삶은 뽕뽕하다는 의미와 태양이 내리쬐는 밝은 날을 함의한다. 한편으로 분홍색은 뽕뽕이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태양이 뽕

뽕하게 내리쬐면 요가도 하고 춤도 추고 해변을 거닐기도 한다.



20년째 세계를 여행하는 65세 여성 뽕뽕은 세계지도 속 방방곡곡을 다니는 현재의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달 제공>



에 대한 사랑, 문화에 대한 사랑, 풍경과 음식에 대한 사랑 등이 호기심과 맞물려 낯선 나라로 이끄는 것이다. 또한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세계의 나라는 단지 종이 속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모든 여행이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크고 작은 실수로 여행을 망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일반적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저자는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 그 순간까지도 사랑한다고 외치라고 권유한다. 좌충우돌의 삶도 사랑하리라 내뱉는 순간 미지의 세계 또한 '뽕뽕하게' 열린다는 것이다.

책은 여행을 주저하는,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말의 용기를 준다. 한편으로 그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달·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유 있는 고전

구은서 지음

고전을 정의하는 말은 많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일컫는다. 당대뿐 아니라 이후에도 조명을 받는 책이다. 어떤 경우는 당대에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세에 주목을 받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전은 끊임없이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고 독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구은서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가 '이유 있는 고전'을 펴냈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포럼 아르떼에 '이유 있는 고전'을 연재한 것 가운데 선별해 다듬었다. 여기에 '몬테크리스토 백작', '레 미제라블' 등을 더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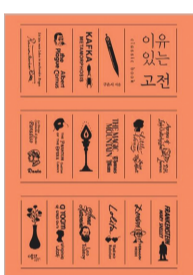
저자가 선정한 고전은 고대 그리스 희곡부터 현대 화제작까지 포괄한다. 모두 25편의 서양 고전을 담았는데 일관성을 위해 이번에는 동양 고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언젠가 동양 고전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1부 '역주행 고전'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등이 담겼다.

2부 '예술을 낳은 예술'에서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단테의 '신곡' 등이 3부 '금기에 도전하는 고전'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볼리타'를 만난다.

4부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고전'은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에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을 소개하고 마지막 '고전 중의 고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괴테의 '파우스트' 등을 이야기한다. <에코리브르·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겨난 권력자

박천기 지음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영부인 엘레나 차우셰스쿠(1916~1989)는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던 칭호와 명예에 집착했고 '학술원 박사', '공학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과학자처럼 행세했다. 그녀의 패악은 형제들을 정부 요직에 꽂아 넣으면서 본격화 된다. 루마니아판 국정농단으로 불린다. 독재자 부부의 24년 정치의 최후는 너무나 뻔했다. 분노한 국민들로 인해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군에 의해 끌려나온 부부는 총을 맞고 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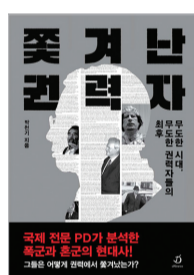
독재의 결말은 항상 비슷하다. 무솔리니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 주유소에 시신이 겨꾸로 매달리는 능욕을 당했고 '아랍의 미친개' 카다피 또한 시민군에 의해 거리에서 처참하게 피살당한다.

국제 전문 PD 박천기가 무도한 시대, 무도한 권력자들의 최후를 다룬 책 '꽃겨난 권력자'를 펴냈다. 저자는 현대 세계사에서 독선과 타락으로 무너진 권력자의 사례를 분석한다. 몰락의 평행이론은 대중의 요구에 응하는 영웅적 등장으로 시작해 개인적 욕심이 야기한 불명예 퇴장으로 끝을 맺는다. 그런 과오를 정당화하면서까지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시인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궁극적으로 남는다.

책은 20~21세기 현대사에 폭군과 독재자, 혼군(昏君)으로 기록된 19명의 권력자가 등장한다. 무솔리니, 사담 후세인, 차우셰스쿠, 카다피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도 있고 폴 포트나 밀로셰비치처럼 급사한 인물도 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비추어봐도 한 치의 비껴감이 없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기시감을 선사한다. <디페랑스·1만8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가라 인생

강백수 지음

"영수증을 챙겨 편의점을 빠져나온다/ 이어폰을 꽂은 점원은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은 하루였다/ 나만 함구한다면 오늘이 있었다 믿을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회용 우산' 중)

삶 속 '가라(하루)' 같은 순간들에 고향을 지르는 듯한 시편들, 무의미가 뒤섞인 세계에 의미를 고하는 시집이 나왔다. 강백수 시인이 최근 펴낸 '가라 인생'은 시와 노래, 세계에 대한 통찰이 뒤섞여 있는 한 편 고백과 같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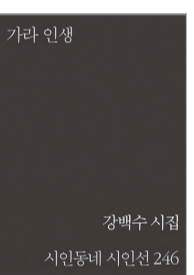
한양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시인은 2008년 '시와세계'로 등단한 뒤 시집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 산문집 '서툰 말', '사축일기'를 비롯해 '땀이 달다' 등을 펴냈다.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시인은 대표곡 '타임머신' 등 총 3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 음악인으로 활동했다.

문학과 음악을 오가는 이력 때문인지 시집을 관통하는 코드 중 하나는 '음악'이다. 시 '폭설과 블루스', '오토튠', '영원한 노래'를 비롯해 'Bass', '스켓' 등은 시인이 성찰한 음악을 토대로 세상을 분석하고, 불안과 위태로운 모습을 포용하는 작품들이다.

저자는 시인의 말에서 "정작 아무도 안 쓰는 걸(시) 나는 쓴다. 땀밖에 당신을 만났다"며 "모든 활자는 엄밀히 말해 얻어걸렸다. 누구도 정확히 똑같은 주파수의 비명을 두 번 지르지는 못하므로"라고 언급했다. 시를 쓰는 지난한 여정과 창작의 어려움, 독자마다 다른 시적 자아에 대한 생각이 응축된 문장이다.

저자는 많은 산문집을 펴내온 만큼 발간과 함께 짧은 산문도 남겼다. 자신의 인생을 '밀향선'에 빗대고 스스로를 '신원불명의 인간'으로 지정하면서, '당신의 웃음'을 마 이신처럼 입안에 털어 낼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시인동네·1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